



무더위 비켜 ~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천변의 인공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 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역대급 폭염·골칫거리 해충... 괴로운 여름

지구온난화에 폭염 일수·열대야 갈수록 증가세 곤충 생육 환경 좋아져 아열대성 벌레·말벌 기승

광주·전남지역에서 '폭우 아니면 폭염'이라는 극과 극 기상패턴이 반복되고 아열대성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는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주지방기상청 관측 기준(1월부터 7월10일까지)으로 역대 가장 긴 7일간 폭염(낮 최고 기온 33도 이상)이 이어지면서 지치단체에서는 방역비상이 걸렸다. 한편은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의 평년(1981~2010년) 폭염 일수는 12일이다. 여름이 한창인 7~8월에 11.1일간 폭염이 발생했다. 열대야 현상도 평년 평균 12.6일이었으며, 7~8월에 12.2일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폭염이 총 7일 발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대비 광주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장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2일부터 열대야 현상도 2차례 나타났으며,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이 다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14일까지는 폭염 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폭염 특보 발효지역에서는 낮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는 이날 오후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까지 했다. 한편은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해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지진으로 원전이 중지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전력수급 상황을 정상에서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차례로 올리며 순환 단전 등 긴급 조치를 취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폭염에 아열대성 해충도 급증하고 있다. 곤충의 생육환경이 좋아져 멸강나방 유충과 '등검은말벌' 등이 번성하고 있다. 최근 영광지역에서는 멸강나방 유충으로 옥수수 수확 등을 앞둔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멸강나방 유충은 벼·옥수수 등의 잎과 줄기를 먹어치우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여름철 골칫거리인 말벌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아열대성 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이 곳곳에 나타나 지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소방본부 집계 결과, 지난

2015년 광주지역 말벌 등 벌집제거 출동은 202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622건으로 128.2% 이상 급증했다. 전남에서 벌집제거 출동 건수도 지난 2015년 8227건에서 지난해 1만2282건으로 49.2%나 늘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벌집제거 건수 4622건 중 7~9월에 3881건(83.9%)이었으며, 전남은 전체 신고 1만2282건 중 7~9월에 1만701건(87.1%)을 기록했다. 소방본부는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폭염으로 등검은말벌 등 해충성 곤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장비를 보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기온 상승으로 말벌 생육환경이 좋아지고 활동도 활발해 지고 있다"면서 "말벌이나 벌집은 발견시 건드리지 말고 119에 꼭 신고해 달라"고 조언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교육청 '광화문 1번가'에 정책 제안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교육자치 권한 확대 등 43건

광주 공교육 혁신을 바라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의 여망을 담은 교육정책 과제들이 국민인수위원회의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두 달간 '광주교육 원탁토론회'와 '광주교육 시민대토론회', '광주교육 1번가'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으로부터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정책과제 150건을 제안받은 뒤 이중 8개 영역 43건을 선정해 '광화문 1번가'에 제

출했다. '광화문 1번가'는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창구다. 시교육청이 제안한 8개 영역은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1건) ▲시·도교육청 교육자치 권한 확대(9건)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10건)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공교육 혁신(2건) ▲교사 전문성 향상을 통한 공교육 혁신(7건) ▲한 명의 아이라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8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5건) ▲학교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1건) 등이다. 시교육청 김철호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와 적극 협력해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개혁부흥할 대법원장 지명을" 변형·현직변호사 설문

현직 변호사 상당수가 법원의 형사 재판 불공정하게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관 임명'이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이뤄져 왔는가라는 질문에 59%가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16%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질문에 34%가 '매우 공감한다', 54%가 '공감하는 편이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

특실 → 일반실로... KTX 좌석 늘린다

국회 KTX 특실 개조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개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코레일은 만성적 KTX 좌석난에 대응해 구형 KTX 열차 특실 4량 중 1량을 일반실로 개조해 하루 5000개 좌석을 추가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말까지 구형 KTX 열차의 특실 1량을 일반실로 바꿔 횡으로 3열(2×1)인 좌석을 4열(2×2)로 개조하겠다는 구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코레일은 조만간 /연합뉴스

가스레인지 과열 유발 '센서캡' 유통

한국소비자원은 "조리 용기와 센서캡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는 사례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돼 조사했다니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가마솥 2종 제품에 센서캡이 포함돼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는 조리 용기 바닥면의 온도를 감지해 300도 이상 과열되면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다. 센서캡은 가스레인지의 과열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제작된 탈착형 캡으로, 과열방지장치와 조리 용기 바닥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 계속해서 고온으로 음식을 가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소비자원은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해 시험했다니 과열방지장치가 조리 용기의 과열을 감지하지 못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하는 행위는 가스 용품의 개조를 금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제조·유통 업체들에게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생산된 센서캡 폐기, 가마솥 제품 반품 수용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8 해질 22:05
해짐 19:48 달짐 09:03

뜨거운 한반도
가끔 구름 많고 새벽에 안개 끼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24/34	보성	맑음	21/33
목포	맑음	24/31	순천	맑음	24/33
여수	맑음	24/32	영광	맑음	22/33
나주	맑음	22/33	진도	맑음	24/31
완도	맑음	23/32	전주	맑음	23/34
구례	맑음	21/34	군산	맑음	23/31
강진	맑음	22/32	남원	맑음	22/34
해남	맑음	22/32	흑산도	맑음	21/28
장성	맑음	21/3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남동~남	0.5	남동~남	0.5
남부	면해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	면해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서부	면해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면해	(서)	남~남서	1.0~1.5	남~남서	1.0~1.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0:02	04:51
	22:04	16:55
여수	밀물	썰물
	05:28	17:24
	11:30	23:58

◇주간 날씨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	☀	☀	☀	☀	☀	☀
25/33	25/31	25/31	25/33	25/33	25/33	25/33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